

지역문화의 과제와 지방문화원의 역할 : 서울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 현 우 도봉문화원 지역학진흥팀장

지방문화원은 1947년 개원한 강화문화원을 중심으로 현 231개의 원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의 최대 네트워크다. 오랜시간 지역문화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지방문화원은 이제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체질 개선은 '지역학' 연구를 통한 지역 정체성 탐구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존 과거지향적이었던 향토문화를 넘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동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1947년 강화문화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문화원은 전국 기초 자치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관이다.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탄생한 문화원은 그 태생부터 지역적이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우리 지역만의 문화를 탐구하고 이를 보존, 계승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문화원은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지역문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지방문화원은 2022년 현재 전국 231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 최대 네트워크다.

그러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문화원의 활동은 다소 주춤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었던 시절, 문화원은 지역에 위치한 문화기관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는 문화원의 기능을 대체, 보완할 다양한 지역문화 기관이 설립됐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장으로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기준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은 기존의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방문화원의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는 문화원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원 사업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문화원진흥법」)

이렇듯 문화원의 담당 사업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지역문화현장에서 구현해 내는 일은 보다 체계화, 참여화되어야 한다. 기존 ‘향토문화’로 이야기 되던 지방문화원의 사업들은 각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아래 지역을 현창(顯彰)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수행되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2022년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구성원은 다양해지고 지역적인 소속감이나 애향심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더불어 지역 소도시의 경우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당면해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아래 현대 사회의 문화지형에 유효한 문화원의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문화를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간적 축과 지역에서 광역으로 퍼져나가는 공간적 축으로 크게 두 가지 기준점을 중심으로 교차해보면 향후 지방문화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래는 서울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문화원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전통-지역 :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조명”

각 지역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관련 사업은 지방문화원의 설립부터 이어진 고유한 목적 사업이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전통적 가치를 계승, 보존, 발전하는 일은 지방문화원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오늘날의 수요에 맞게 적절히 가공하여 제시하는 것은 지역문화 사업의 중요한 갈래이다.

도봉구는 도봉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봉산에 위치한 ‘도봉서원(道峯書院)’은 조광조와 송시열이 모셔진 곳으로 조선시대 서

인 세력의 공론이 형성되었던 장이다. 도봉서원에서는 매년 봄, 가을 ‘도봉서원 홀기’에 의거해 전통 향제가 봉행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통향제의 제례 의식을 지역민에게 소개하고 공간에 깃든 정신을 기리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제례는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1. 도봉서원 향제

(출처 : 도봉문화원)



그림 2. 연산군 청명제향

(출처 : 도봉문화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의 원형은 오늘날의 지역민이 향유하기 좋은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봉한글잔치’는 이러한 목적 아래 탄생한 지역 축제다. 도봉구의 역사인물 정의공주는 세종대왕의 둘째 딸로 한글창제에 기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한글날에는 정의공주묘 인근 원당샘공

원에서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도봉한글잔치’가 열린다.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도봉한글잔치는 이제 지역민이 먼저 찾는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했다.

이 외에도 우리 지역을 바로 알기 위한 ‘토요탐방 도봉기행’,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도봉학연구소’의 설립 등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활용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방문화원의 설립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지역문화의 기반은 이 분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현대-지역: “문화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껏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에 여러 방면으로 기여해 왔다. 하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접근이 ‘과거지향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가치 알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사회, 지금 이 현실에서 필요한 문화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주(定住)의 개념이 열어지고 지역 내 새로운 구성원이 등장하고 있는 요즘 문화원의 역할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움직임이 바로 ‘지역학’이다. 기존 향토문화연구의 가치에 기반하되 현대사회의 지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나서고자 한 것이다. 지역을 연구해 온 역사, 민속, 문학 등의 기존 학문과 함께 지리, 관광, 생태, 문화콘텐츠, 도시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지역학은 확대되고 있다. 지역학의 목표는 다양한 시선의 교차를 통해 현재 우리 지역을 보다 깊게 분석하고 지역적 수요를 찾아내는 것이다.

지역학의 흐름은 지역문화의 가공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학문 연구의 성과 축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탄생까지 그 범위인 것이다. 도봉문화원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지역의 일상을 다루는 지역 대중서 ‘도봉

사람들은’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2회 개최되는 도봉학 학술회의를 통해 지역학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학 특강’을 개최하고 학술지 『도봉학연구』를 정기 발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보드게임을 개발하는가 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컬러링북, 그림동화책, 절기 놀이 워크북 등 교재를 제작하였다.



그림 3. 지역대중서 ‘도봉사람들은’ 시리즈

(출처 : 도봉문화원)



그림 4. 지역문화보드게임 ‘방방곡곡도봉봉’

(출처 : 도봉문화원)

지역정체성의 탐구 및 공유는 지역문화기관의 사명

과도 같은 것이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만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다움’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탐구된 지역성이 지역민에게 공유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역성이라고 볼 수 없다. 지역민이 지역문화를 향유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성을 내재화하고 이것이 새롭게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문화원의 역할인 것이다.

■ 전통-광역: 우리 문화의 계승과 연대

역사적으로 경기지역에 속해 있던 도봉구는 행정편의에 의해 분할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 경기 양주, 의정부를 비롯한 서울 동북권의 자치구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도봉구는 경기-서울의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은 그 범위에 교집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행정권역을 넘어 문화권역의 설정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 있다.

지역문화의 기본 단위인 자치구, 보다 더 세분화하면 법정동의 행정권역을 전제로 두고 각 공간이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는 문화권역 플랫폼의 형성은 중요하다. 이에 서울 동북권역 문화원(도봉, 강북, 노원, 성북, 중랑)은 지역에 자리한 덕성여대 지역문화연구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단체는 지역학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지점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각 지역의 역사문화적 개별성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5. 서울 동북권 지방문화원-덕성여대 지역문화연구센터 MOU 체결

(출처 : 도봉문화원)

이러한 측면에서 도봉문화원 도봉학연구소의 지역학 연구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 ‘도봉옛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봉옛길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과 한반도 각 지역을 잇는 6대로 중 2대로인 ‘경흥대로’의 도봉구 구간을 지칭한다. 서울 동대문에서 시작해 도봉구의 4개 법정동(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 길은 북으로 의정부, 양주, 포천, 철원을 지나 함흥, 북청, 길주, 경흥까지 이어진다. 지역 내에서는 각 법정동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고 나아가 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6. 대동여지전도에 표시한 경흥대로

(출처 : 도봉문화원)



그림 7. 제2회 도봉옛길 문화제

(출처 : 도봉문화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옛길은 지금껏 조명받지 못했다. 도봉옛길은 예부터 지금까지 지역민의 일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이라 문화적 가치와 활용을 생각하지 못했던 도봉옛길은 지역학 연구를 통해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오래 살아 온 토박이를 만나고 옛 모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도봉동 성황당과 같이 기억 속으로 사라져간 공간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새롭게 개최한 ‘도봉옛길 문화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주민의 일상을 문화의 차원으로 승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연계 지점을 만드는 것. 지역문화에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한 이유다.

■ 현대-광역: 지역문화의 새 동력과 자원 확보

지역 내 소재한 다양한 문화자원은 매력있는 재료다. 하지만 이 재료를 활용해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를 빚어내는 것은 지역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날이 커지는 지역문화에 대한 수요에 앞서 지역문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인 이유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2.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지역문화진흥법」)

도봉문화원은 위 법령에 따라 2021-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에 관심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역학’에 기반한 교육 커리큘럼이었다.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달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문화포럼 ‘역지사지: 역시 지역, 사람 지속’

(출처: 도봉문화원)

지역학 중심의 교육과정은 서울 지정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서울에는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모인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지역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소도시가 문화적 동력을 확보하고 싶어도 이를 담당할 청년인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역에는 지역에 다시 돌아 올 청년 인력이 절실하다. 서울은 스스로의 지역문화의 진흥은 물론이고 타 지역 소도시의 문화적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본 양성과정을 수료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은 현재 다양한 지역문화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향후 지역문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껏 과거지향적이었던 지방문화원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과 역량을 가진 청년층의 포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수요와 과제가 반영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확보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 우리 시대, 지방문화원의 미래

지방문화원은 해방 이후 우리 지역문화를 보존, 계승해 온 지역문화의 산실이다. 지역민에게 끊임없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역문화의 지형과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 역시 달라졌다. 지방문화원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문화원의 미래는 ‘지역학’에서 시작한다. 이전과는 공간적 범위, 문화적 수요, 구성원 등 모든 것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지역을 탐구해야 한다. 이미 몇몇 문화원에서 지역학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역사가 아니라 그 가치가 폄하되었던 최근의 사건들, 주요 인사가 아니어서 소홀히 여겼던 지역민의 일상은 모두 지역문화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지역문화 아카이빙’이 시급하다.

지역문화는 과거처럼 우리 정신문화나 역사적 가치 등 추상적인 기대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사라져 버린 지역 정체성이나 공동체성, 지역적 자긍심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역할이다. 지역 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로써 지역문화가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오영교(2021),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 ‘도봉학’ 연구의 정립과 관련하여, 「도봉학연구」, 제 3호, 3-26.

최영근(2020),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원의 발전 방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문화원연합회(2022), 「한국문화원연합회 60년사」, 한국문화원연합회.

도봉문화원 홈페이지(dobong.or.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우(2022). “지역문화의 과제와 지방문화원의 역할: 서울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0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진현우 dobonglab@daum.net
ACKIS브리핑 작성 2022.12.27.

#지역문화 #지방문화원 #도봉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역